

회계정보 이용자의 성격과 인지 양식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Personality and Cognitive Style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on Decision Making -

최 영 곤**

目 次

I. 서 论	IV. 자료분석
II.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	V. 결 论
III. 연구방법	

I. 서 论

개인의 심리적 차이 (psychological differences)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계연구들이 197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Dermer(1973), Lusk(1973,1979) San Miguel(1976)]. 이 분야의 연구의 한 양상은 회계정보이용자 사이의 개인차 (individual differences)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연구의 목표는 회계담당자가 정보이용자의 정보처리욕구에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개인차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회계담당자는 정보이용자의 특성 (user's character-

*이 논문은 1985년도 한국경영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ristics)의 이해에 바탕을 둔 보다 좋은 회계정보시스템(accounting information system)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Benbasat and Dexter, 1979).

개인의 심리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성격(personality)과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회계연구자들은 이 두가지 요인을 개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불일치하였다(Faircloth and Ricchiute 1981). 또 기존 연구들은 성격의 제 영향을 고찰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중에 작용하는 인지과정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여기서 개인차를 야기시키는 성격과 인지양식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 연구목적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성격(personality)과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결합효과와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성격변수는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tolerance for ambiguity)이다. 상황의 명백성 혹은 모호성에 대한 반응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이것이 조직구성원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학중, 1984). 이 변수는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과 못참을성(tolerance-intolerance of ambiguity)의 두 수준(two level)으로 나뉘어진다. 모호함에 대한 못참을성이란 애매한 자료(material) 또는 상황을 위협의 원천으로 지각(해석)하는 성향이다(MacDonald 1970).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란 애매한 자료 또는 상황과의 접촉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또한 애매한 상황(ambiguous situation)이란 개인이 충분한 정보(sufficient cues)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조화 혹은 범주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Budner, 1962). 그러므로 애매한 상황하에서 개인의 정보판독시스템(decoding system)은 현상학적인(지각과 평가) 혹은 실제적인(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신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애매함을 경험하는 개인은 복종(submission) 혹은 부정(denial)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애매한 상황에서 개인은 문제를 의식적으로 무시해 버리거나(복종),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기로(부정) 결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양식은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나 심리학과 회계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 사용되어 온 위트킨(Witkin, et al)의 인지양식 분류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즉 인지양식 변수는 상황의존성(field dependence)과 상황독립성(field independence)으로 나누어진다. 상황의존적 인지양식에 있어서 지각(perception)은 주위 환경의 일반적 구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상황의 부분들은(parts of the field) 서로 혼합(fused)된 것으로 체험된다. 바꾸어 말하면 상황의존적인 사람은 정보를 총체적(global)으로 지각하고 정보의 맥락(context)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한편 상황독립적 인지양식에 있어서는 상황의 부분들이 조직화된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체험된다(Witkin, et al, 1971). 바꾸어 말하면 상황 독립적인 사람은 제공되는 여러 정보로부터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분석적으로 가려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의 하나인 의사결정확신도는 종속적인 인간정보처리변수(dependent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variable)의 일종으로써 의사결정의 정확성(correctness) 정도에 관하여 의사결정자 자신이 스스로 평점한 확신도(self-rated confidence)이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의사결정 확신도는 「테일러」(Taylor, 1975)의 견해에 바탕을 두었다.

본 연구의 중요성은 회계정보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정보이용자의 개인차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간의 정보처리시스템(hum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의 연구에 하나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가설

이 논문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애매한 회계정보에 직면했을 때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 낮은형(이하 '못참는형'이라 한다.)과 참을성이 높은형(이하 '참는형'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확신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이 가설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성격변수가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

ect)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설이 기각되면 참는형과 못 참는형 사이에는 그들 스스로 평정한 의사결정 확신도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설 II :

애매한 회계정보에 직면했을 때 상황의존성의 정도가 적은형 (이하 '상황독립형'이라 한다.) 과 상황의존성의 정도가 많은형 (이하 '상황의존형'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확신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이 가설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인지양식이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설이 기각되면 상황독립형과 상황의존형 사이에는 그들 스스로가 평정한 의사결정 확신도에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설 III :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가설의 목적은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 effect)를 알기 위한 것이다. 이 가설이 기각되면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이다.

가설 IV :

성격, 인지양식 및 그 상호작용이 회계정보/의사결정 확신도 사이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moderate effects)는 없다.

앞의 세가지 가설은 성격과 인지양식의 직접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나, 이 가설은 두 변수가 회계정보/의사결정 확신도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제 영향을 알기 위한 것이다. 즉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확신수준을 변경시킬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확신수준의 변경의 정도와 특징은 ① 성격, ② 인지양식, ③ 성격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의 함수가 될지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에 의하여 가설 IV를 설정하게 되었다.

3. 정보이용자의 심리적 변수들

가) 성격과 인지양식의 개념

성격 (personality)이란 용어의 뜻은 성격을 정의하려는 사람만큼 매우 다양하며 아

직 심리학 내에서 "성격"이란 용어에 대한 그 근본적 정의에 대해서 조차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이훈구, 1983).

본 연구에서의 성격은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나 신념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Budner, 1962). 한 개인이 지닌 태도나 신념이 무엇인가(What a person thinks) 즉 사고의 내용(content of thought)에 관련된 것이 성격이다(Herriot, 1981).

한편 인지양식(cognitive style)이란 개인이 사고하고 지각하는 방식 또는 정보를 획득, 저장, 처리 및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Lazarus 1976, Driver et al 1967, Schroder et al 1971).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How he thinks) 즉 사고의 내용보다는 사고의 구조(structure) 또는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인지양식이다(이회도 1977, 김순택의 6인 1981).

나) 성격과 인지양식의 구분

예컨대 정치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진보주의는 정치적 사고 내용의 연속선상에서 서로 다른 양극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고양식(style of thinking)이 어떠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새로운 정보원(source)에 폐쇄적이고 또 엄격하게 자기의 신념을 지닐 수가 있는가 하면,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방성(openness)"이란 신념의 기초를 형성하는 구조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수주의는 한 개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가(What is believed)하는 것에 관련지워져 있다.

이와같이 한 개인이 그가 무엇을 사고하는가, 그가 가진 태도(attitudes)나 신념(beliefs)이 무엇인가(성격)하는 것과 그가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가(인지양식)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이다.

다) 결합연구의 필요성

개인차는 두가지 면(facets)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격 유형의 개인들 사이에 정보의 획득, 처리 및 전달방법(인지양식)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으며 또 같은 인지양식 유형을 지닌 개인들 사이에 그들이 지닌 태도나 신념(성격)이 서로 상이할 수도 있

을 것이다.(Pratt 1980). 이와같이 두 개념이 서로 구분이 되지만 한편 태도나 신념이 정보를 조직화 해주고 또 처리하는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는 성격과 인지양식이 서로 관련지워져 있다. 사실 인지양식은 많은 성격변수들과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인지양식변수와 성격변수중 어느 하나의 변수만을 분리해서 연구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의 변수에 의한 개입효과(confounding effect) 때문에 의미가 없거나(insignificant) 또는 상호 불일치 되는(inconsistent) 연구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Faircloth and Ricchiute, 1981).

이러한 견해는 심리학자들(예, Loomis and Moskowitz 1958, Mischel 1979)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며, 「뉴웰/사이몬」(Newel & Simon, 1972) 과 「이스레머」(Isfehmer, 1976)는 성격특성(personality characteristics)은 단지 하나의 반응차원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제한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염두해 두면서 또 서로 상이한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이 의사결정을 할 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개인차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되면 성격변수(personality variables)의 영향이 보다 뚜렷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

1. 성격에 관한 연구들

성격변수중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못참을성(tolerance/intolerance of ambiguity)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서로 상충(conflicting)되고 있다. 「버드너」(Budner, 1962)와 「노튼」(Norton, 1975)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못참을성과 추가적인 정보욕구 사이에는 잠재적인 상호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들은 어떤 개인의 못참을성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확신을 얻기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더머」(Dermer, 1973)는 그의 연구에서 애매모호함을 참지 못하는 피험자(subje-

cts)는 더 많은 정보를 선호한다는 연구가설을 입증하였다. 또한 못참을성과 중요한 것으로 지각되는 정보의 유형 (types) 간에 부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실험결과를 밝혔다. 「더머」의 연구결과는 일반화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격특성이 정보의 선호에 (perference)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매끼」등 (McGhee, et al, 1978)은 못참을성과 투자주식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회사의 주식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련된 의사결정 (여덟개의 재무적 정보에 의거하여)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실험결과를 밝혔다. 이들의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개인의 판단, 판단의 확신도 또는 희망하는 정보의 양이었다. 참는형과 못참는형 사이에 판단의 확신도 또는 희망하는 정보의 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페어크로스/리치트」(Faircloth/Ricchiute, 1981)는 못참는형의 회계담당자가 보다 많은 재무정보의 공시를 바라는지를 연구하였는바 실험결과에 의하면 못참을성과 공시 정보양 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이들은 못참을성 변수에 관한 이제까지의 회계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은 다른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이와같은 유형의 행동적 회계연구의 발견사항들을 혼동시켰을 가능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과업의 복잡성, 정보가 조직화되고 파일되는 방식,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ation) 등과 같은 잠재적 개입요소 등에 관한 차후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참을성/못참을성 변수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이유는 「페어크로스/리치트」도 지적한 바 있듯이 기타 변수에 의한 개입효과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성격변수와 기타 변수를 각기 따로 따로 연구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성격변수의 영향을 보다 뚜렷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기타 변수를 예컨대, 인지양식을 동시에 결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Gul, 1981).

2. 인지양식에 관한 연구들

「러스크」(Lusk, 1973)는 연쇄보고서의 형태(form)가 투자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숨겨진 맥락(embedded context)으로부터 중요한 관계를 추출해 낼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숨은 그림찾기검사(Embedded Figures Test)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상황독립형은 상대적으로 분석적이고 또 부분의 내용이 서로 연결된 (articulated) 연례보고서 형태를 선택하였다. 또 낮은 점수를 얻은 상황의존형은 총체적 (global) 이고, 또 부분의 내용이 연결이 안되는 연례보고서 형태를 선택하였다. 「러스크」(1979)는 또 하나의 연구에서 피험자로 하여금 일람표형식의 보고서와 그래프식의 보고서를 이용하여 질문에 대답하게 한 결과 상황독립형이 상황의존형보다 성과가 뛰어난을 알아내었다.

「바살리」(Wasarhely, 1976)는 그의 연구에서 상황의존형의 피험자와 상황독립형인 피험자사이에 경영계획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성과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실험결과를 밝혔다.

「벤바세트/덱스터」(Benbasat & Dexter, 1979)는 생산/재고 결정문제에서 상황독립형이 상황의존형보다 성과가 뛰어나며, 또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었다고 실험결과를 밝혔다.

「굴/자이드」(Gul & Zaid, 1981)는 그들의 연구에서 상황의존형의 회계담당자는 상황독립형인 회계담당자에 비해서 애매한 회계정보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 확신도가 보다 높음을 발견했다.

「오틀리/다이어스」(Otlez & Dias, 1982)는 "회계요약과 의사결정성과"라는 그들의 논문에서 상황독립형과 상황의존형사이에 정형화된 의사결정하에서는 성과면에서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Ⅲ. 연구 방법

1. 실험실 실험

이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성격과 인지양식이 의사결정 확신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실험실실험(laboratory experiment)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실험실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오세철, 1980 Joon Seuk Kim, 1982).

그러나 실험은 피동적응답성향 (acquiescence), 평가불안 (evaluation apprehension) 요구 특성 (demand characteristics), 실험자 기대효과 (experimenter expectancy effect) 등과 같은 허구성 (artifacts) 을 가지므로 (김남현, 1983) 이를 제거 내지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2. 피험자

이 실험에서 피험자로 사용된 사람은 대학원 경영 및 회계학과 석사과정 학생과 학부 경영 및 회계학과에 재학중인 3,4학년 학생중에서 지원자 (volunteers) 148명이었다.

피험자로 이들을 선택한 이유는 실험의 성격상 회계 및 인사 의사결정에 대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피험자들은 실험에서 의사 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성격의 결정

이 연구에서 피험자의 성격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는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검사 (tolerance for ambiguity test: Budner, 1962) 이다. 이 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것의 신뢰성 (reliability) 과 타당성 (validity) 이 입증되었고 또한 「더머」, 「매끼등」 「페어크로스/리치트」, 「더미스/래위스, 1982」 등이 이전의 회계학 연구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검사의 문항수는 모두 16개이며 긍정적항목 8개와 부정적 항목 8개로 나누어져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형의 척도 (likert-type scale) 를 사용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1점을 주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6점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8개의 부정적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6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1점을 주도록하여 긍정적항목과는 반대방향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총점수가 52점 이상인 피험자 74명은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이 낮은형 (못참는형) 으로 52점 미만인 피험자 74명은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형 (참는형) 으로 구분하였다.

4. 인지양식의 결정

이 연구에서 피험자의 인지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는 「위트킨 등」에 의하여 개발된 "숨은그림찾기검사"이다. 인지양식 검사로 이 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숨은 그림찾기 검사의 신뢰성 (reliability) 과 타당성 (validity) 이 확인되었고 「러스크」, 「바살리」, 「벤바세트/멕스터」, 「걸/자이드」, 「오틀리/다이어스」 등이 이전의 회계학연구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숨은그림찾기 검사의 문제수는 I부 7개, II부 9개, III부 9개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I부는 검사지의 지시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연습으로서 점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소요시간은 II부, III부 각각 5분씩이다.

이 연구에서는 숨은 그림찾기 검사 18문제중 9문제 이상을 맞춘 피험자 72명은 상황 독립형으로 8문제이하를 맞춘 피험자 76명은 상황의존형으로 구분하였다.

5. 실험설계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진정한 실험설계 (true experimental design) 를 사용하였다.

숨은 그림찾기 검사의 점수로 피험자를 상황의존형집단과 상황독립형집단으로 나누었다. 또한 성격검사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 검사) 의 점수로 참는형 집단과 못참는형 집단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실험집단 (treatment group) 은 다음 <표 1> 이 보이는 바와 같이 피험자의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네집단 (2 × 2 행렬) 이 된다. 각 집단의 피험자가 본실험에 참가한 순서대로 각 칸 (cell) 별로 최소한 30명 이상이 되도록 배치한 결과 피험자수는 각기 32명 선에서 숫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총 128명의 결과를 자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인지양식 \ 성격	참 는 형	못 참 는 형
상 황 의 존 형	G ₁	G ₃
상 황 독 립 형	G ₂	G ₄

G₁ 참는형이면서 상황의존형인 피험자 집단

G₂ 참는형이면서 상황독립형인 피험자 집단

G₃ 못참는형이면서 상황의존형인 피험자 집단

G₄ 못참는형이면서 상황독립형인 피험자 집단

6. 실험과업

이 실험에서 피험자에 주어지는 질문서는 인사말, 실험과업이 담긴 질문서 1 과 질문서 2로 나누어진다.

과업은 피험자에게 현재 이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3주간, 6주간 또는 12주간 일시적으로 해고시킬 것인가, 또는 해고시키지 않을 것인가 하는 네가지 대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게한 뒤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의 확신도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다.

회사내의 관리회계과장과 인사과장이 인사 의사결정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정보로서 회계자료 또는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질문서 1)에서는 일시해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리회계과장이 작성한 급여절약액 자료(전통적 회계자료)와 일시해고를 반대하는 인사과장의 의견서(전통적 자료)를 제시한 다음 네가지 대안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의사결정(문항 1)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의 확신도를 0에서 100사이의 수치로 표시(문항 2)하게 한다.

(질문서 2)의 내용은(질문서 1)에서 제시된 관리회계과장의 전통적 회계자료와 인사과장의 의견서(전통적 회계자료)이외에, 인사과장이 추가적으로 일시해고에 따른

추가비용 추정치 (인적자원 회계자료)를 제시하였을 때 피험자는 역시 네가지 방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문항 1), 다음에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의 확신도를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 인적자원 회계자료는 피험자에 새롭고 또한 이제까지 익숙하지 않은 도구로서 애매모호한 정보로 간주된다 (Oliver and Flamholtz, 1978).

8. 예비조사 (Pilot test)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질문서 1의 작성 → 질문서 2의 작성 → 숨은 그림 찾기 검사 → 성격 검사

실험실은 강의가 없는 조용한 강의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피험자는 자기 독립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부득이 2인 이상의 피험자가 동시에 실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피험자들을 서로 격리시켜서 피험자 상호간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가능한 실험자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질문서에 실험과업을 알기쉬운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질문을 방지하였다. 피험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실험과업을 끝낸 피험자로 부터는 질문서와 두가지 검사용지를 모두 회수 하였다.

9. 실험의 허구성

예비조사는 본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본실험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시험해 보는 것이다 (김해동, 1983). 본 실험 (main experiment)에 앞서서 예비조사를 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실험과업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살펴본다.

둘째, 피험자가 설계된 실험절차대로 실제로 행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준석, 1983).

셋째, 피험자들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확인한다. 과업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빼앗아 피험자에게 무력감을 주는 경우는 과업자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자중 8명으로 시험조사를 하여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실험의 내적타당성을 높였다.

9. 실험의 허구성

이 연구에서는 실험의 인공적 허구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 이 실험의 경우 실험자 기대효과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자원한 피험자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피험자의 평가불안을 없애기 위해 숨은 그림찾기 검사를 실시 할때는 "이 검사는 지능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켰다. 또 성격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 검사의 결과는 좋고(good) 나쁘(bad)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실험을 할 때에도 질문서에 "개인적인 결과는 공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실험실 실험을 위한 연구설계 및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였다. 다음에는 실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V. 자 료 분 석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실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본장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성격과 인지양식(개인차)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을 살펴 보았다.

첫째, 성격과 인지양식이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independent effect or main effects)

둘째, 성격과 인지양식의 결합효과(joint effect or interaction effect)

셋째, 그 결합효과가 인적자원 회계정보(애매모호한 정보) / 의사결정 확신도간의 상호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s)

이들 항목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성격과 인지양식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인적자원 회계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의사결정 확신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이 이용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상기 셋째 항목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다. 여기서도 성격과 인지양식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의사결정 확신도의 변경차이값 (인적자원 회계정보가 주어진 후의 확신도 - 주어지기 전의 확신도)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이 이용되었다. 이 테스트는 확신도의 변경차이값을 분석함으로써 성격과 인지양식의 조절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 ① 먼저 각 실험집단별 평균값을 구하여 그것을 도시하여 보았다.
- ② 분산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가 있었다.

가설검증을 위해 사용된 유의수준 (significance level)은 0.10이었다.

- ③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주효과 검사 (simple main effects tests)"를 하였다.

1. 상호작용효과 및 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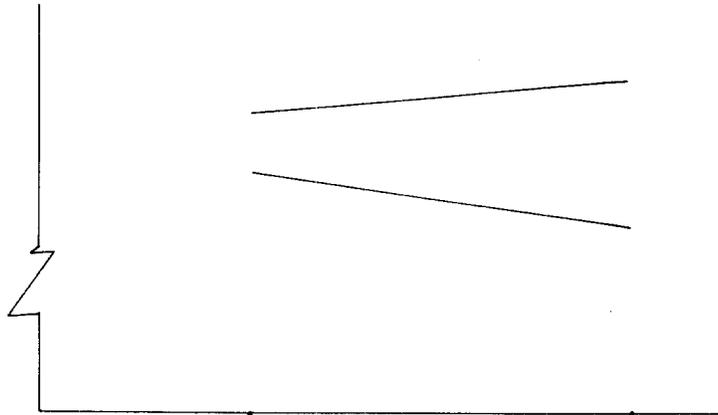
[표 2]

	집 단 별 평 균 값		
	참는형 (HT)	못참는형 (LT)	
상황의존형 (FD)	82.15 (32 명)	87.81 (32 명)	84.98 (64 명)
상황독립형 (FI)	81.78 (32 명)	76.81 (32 명)	79.29 (64 명)
	81.96 (64 명)	82.31 (64 명)	

[표 2]에 의하면 상황의존형 피험자가 상황독립형 피험자보다 모호함에 대한 침울성의 수준에 별 관계가 없이 의사결정 확신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1]

평균값의 도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검토하는 방법은 이를 도시하여 보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두선이 완전히 교차하지는 못하나 교차할 경향을 보이므로 두 독립변수간에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석된다.

또 하나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토하는 방법은 [표 2]와, 같은 시간행렬표에서 종렬의 독립변수의 두 수준 (참는형 / 못참는형)에 대한 횡렬의 독립변수의 두 수준 (상황의존형 / 상황독립형)의 사이의 평균값의 차를 각각 내어 그차의 정도가 같고 차의 방향의 부호가 같을 때에는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말이 된다 (Kerlinger, 1973). 그런데 위의 [표 2]를 보면 HT에 대한 FD와 FI의 평균값의 차는 0.37이고 LT의 경우는 11로서 이들 차의 부호는 반대가 되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후 가설을 검증하였다. 통계적 분산시스템 (Statistical Analysis System) 컴퓨터 패키지를 이용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원분산분석 결과 종합표

원 천 (source)	자유도 (df)	자승합 (ss)	F 값	확률 (PR) > F
주 효 과				
성 격	1	5.695	0.02	0.8775
인 지 양 식	1	1,063.757	4.46	0.0367
상 호 작용 효 과	1	876.757	3.67	0.0575
오 차	124	29,583.468		
전 체	127	31,529.677		

가) 가설 III의 검증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III은 유의수준 0.10에서 기각되었다. 즉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의사결정 확신도 (종속변수)에 유의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이 되겠다.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주효과의 해석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Simple main effects) 검사를 하였다 (Kirk, 1968). 이 검사는 한 변수 (factor)의 모든 수준 (level)에 걸쳐 다른 변수의 각 수준에서 실시되는 일원분산분석이다.

나) 가설 II와 가설 I의 검증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II는 유의수준 0.10에서 기각되었으나 가설 I은 기각되지 않았다. 즉 인지양식이 서로 다른 집단사이에 의사결정 확신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성격변수가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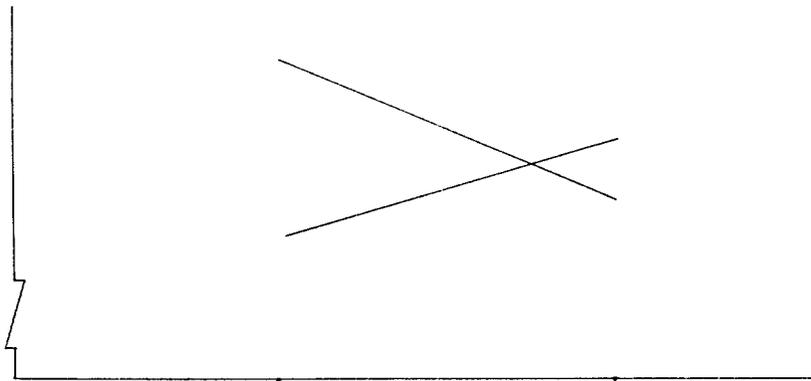
[표 4]가 보이는 바와 같이 상황의존성 집단에서 참는형과 못참는형 사이에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애매모호한 정보에 직면했을때 상황의존성 (인지양식) 집단에서 참는형 / 못참는형 (성격) 사이에 의사결정 확신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이 된다.

또 못참을성 집단에서 상황의존형과 상황독립형 사이에는 10% 유의수준에서 극히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못참을성 (성격) 집단에서 상황의존형 / 상황독립형 (인지양

[표 5]에서 HT에 대한 FD와 FI의 평균값의 차는 3.75 이고 LT의 경우는 -1.1로서 이들 차의 부호가 반대가 되며 차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하나 상호작용의 효과를 검토하는 방법은 이를 도시하여 보는 것이다.

[그림 2] 평 균 값 의 도 시



[그림 2]가 보이는 바와 같이 두 선이 어느 정도 교차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을 한 후 가설을 검증하였다.

[표 6] 이원분산분석 결과 종합표

원천 (source)	자유도 (df)	자승합 (ss)	F 값	확률 (PR) > F
주 효 과				
성 격	1	0.195	0.01	0.9364
인 지 양 식	1	56.445	1.85	0.1763
상 호 작 용 효 과	1	187.695	6.15	0.0145
오 차	124	3,783.593		
전 체	127	4,027.928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의수준 0.10에서 성격과 인지양식의 주효과는 유의적이 아니었으나 성격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검사를 하였다.

[표 7] 분산분석-단순주효과 검사 결과 종합표

원 천 (source)	자유도 (df)	자승합 (ss)	F 값	확률 (PR) > F
상황의존성에 대한 성격	1	100	3.03	0.0865
상황독립성에 대한 성격	1	87.89	3.13	0.0817
참여성에 대한 인지양식	1	225	6.29	0.0148
못참여성에 대한 인지양식	1	19.14	0.76	0.3872

단순주효과 분석에 의하면 특히 참여성 집단에 속하는 상황의존형과 상황독립형 사이에 유의수준 0.10에서 의사결정 확신의 변경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그림2] [표5], [표6] 및 [표7]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설 IV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각되었다. 이것은 인적자원 회계정보가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격/인지양식의 결합효과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의미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의 개인차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 항목에 관하여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논하기로 한다.

첫째, 개인차를 가져오는 성격과 인지양식이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격의 주효과는 없으나, 인지양식의 주효과는 유의적이었다. 즉 인지양식이 서로 다른 집단간에 의사결정 확신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상황의존형이 상황독립형에 비해서 참을성/못참을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애매모호한 정보에 직면했을 때 상황의존형이 상황독립형보다도 판단의 확신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의존성이론(field dependence theory)(Witkin and Goodenough, 1977)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스크, 1973」, 「벤바세트/맥스터, 1979」 및 「걸/자이드, 198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지양식은 그 자체로서 인간행동을 예측하는 하나의 유용한 변수(dimension)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격과 인지양식이 결합하여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는 전체적으로 유의적이었으며 특히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 낮은 집단(못참는형)에서 상황의존형은 상황독립형에 비해서 의사결정 확신도가 전반적으로 높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findings)는 성격의 제 영향을 연구한 바 있는 이전의 회계연구결과(맥그리그등 1978, 페어크로스/리치트 1981)들에 관해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이전의 연구에서 나온 의미없는 결과는 그 원인이 성격과 인지양식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무시한 데 있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두개 변수의 결합효과를 조사하였다더라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성격에 대한 특질접근(trait approach)을 비판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행동의 일관성은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도 안정적이라는 믿음에 회의를 품는다(Buss, 1977). 회의를 품는다는 것은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격이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변수들과 결합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셋째, 성격변수와 인지양식변수가 상호작용하여 회계정보/의사결정 확신도 사이의 관계를 어느정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참는형집단에 속하는 상황의존형과 상황독립형 사이에 의사결정 확신의 변경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인적자원회계정보(애매모호한 정보)가 의사결정 확신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격/인지양식의 결합효과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의미이다. 다시말하면, 의사결정 확신도는 인적자원회계정보, 성격, 인지양식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상황에서는 인적자원회계정보가 의사결정확신도의 변경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차이/인간 정보처리 혹은 의사결정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향후의 회계 연구자들에게 ① 성격과 인지양식은

구별이 되는 변수이고, ② 이 두변수가 상호작용하여 회계정보/의사결정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계정보이용자의 개인차간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이용자 지향의 회계기능(송자, 정종암, 1983)에 입각한 회계정보시스템 설계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 조그만한 보탬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실 실험의 연구방법은 실제 현상을 그대로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김준석, 1985). 그러므로,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유형, 실험환경, 실험절차, 과업, 검사방법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남현 역 (Eupen F. Stone) 「연구방법론」, 경문사, 1983.
- 김순택 외 6인, 「현대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81.
- 김준석, 정보시스템의 평가를 위한 규범적 모형의 타당성 분석, 「경영학 연구」제 12권 2호 한국경영학회, 1983.
- 김준석, 회계정보시스템 선택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제 21집 사회과학편, 연세대 대학원, 1985.
- 김해동, 「조사방법론」, 법문사, 1983.
- 송 자, 정종암, 「회계감사(전정판)」, 법문사, 1983.
- 오세철, 사회과학에 있어서 양적 방법론의 문제: 실험을 중심으로 (상), 「산업과 경영」 제 17 권 제 2호 August, 1980, pp. 89 ~ 108.
- 이학중, 「조직행동」, 세경사, 1984.
- 이희도, 「인지양식과 과제제시 유형의 교수 효과」,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 대학원, 1977.
- 이훈구 역 (Hjelle & Ziagler) 「성격심리학」 법문사, 1983.

- Benhasat, I. and A.S. Dexter, "Value and Events Approach to Accounting: An experimental Evaluation, " *THE ACCOUNTING REVIEW* " October 1979, pp. 735-749.
- Eirnberg, J.G., M. Shields and W. McGhee.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Subjects Information Processing: A Reply,"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80, pp. 507-510.
- Budner, S., "Intolerance of Ambiguity as a Personality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March 1962, pp. 29-50
- Buss, A.R., "The Trait-Situation Controversy and the Concept of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April 1977, pp. 196-201.
- Dermer, J.,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In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3, pp. 511-519.
- Faircloth, A. W. and D.N. Ricchiute, "Ambiguity Intolerance and Financial Reporting Alternative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March 1981, pp. 53-67.
- Gul and O. Zaid, "Field Dependence and Accounting, Confidence in Decisions," *Psychological Reports*, December 1981. pp.949-950.
- Isrehmer, B., "Social Judgement Theory and the Analysis of Interpersonal Conflict," *Psychological Bulletin*, November, 1976, pp. 985-1003.

- Kerlinger, Fred N., *Foundations of Behavioral Research* 2nd ed., Holt, Rinehart, Winston 1973.
- Kim, J.S., "The Effects of the Knowledge of the Decision Model used by the Decision Maker on the Evaluation of Information System,"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1982.
- Kirk, R.E., *Experimental Design: Procedure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Brooks/Cole Publishing Co., 1968.
- Newell, A. & Simon, M.A., *Human Problem Solving*, Prentice-Hall, Inc., 1972.
- Libby, R. and B. Lewis,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Research in Accounting: The State of the Art,"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No. 3, 1977, pp. 245-268.
- Loomis, H.K. and S. Moskowitz "Cognitive Style and Style and Stimulus Ambiguity," *Journal of Personality*, March 1958, pp. 349-364.
- Lusk, E. "Cognitive Aspects of Annual Reports: Field Independence/Dependence," *Empirical Research in Accounting: Selected Studies, Supplement to th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73, pp. 191-202.
- MacDonald, A.P., Jr., "Revised Scale for Ambiguity Tolerance, Reliability and Validity," *Psychological Reports*, June 1970, pp. 791-798.

- McGhee, W., M. Shields and J. Birnberg,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a Subject's Information Processing,"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8, pp. 681-697.
- Mischel, W., "On the Interface of Cognition and Personality," *American Psychologist*, September 1979, pp. 740-754.
- Newell, A. & Simon, M.A., *Human Problem Solving*, Prentice-Hall, Inc., 1972.
- Oliver, J. and E. Flamholtz, "Human Resource Replacement Cost Numbers, 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onnel Decisions: A Laboratory Experiment,"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Summer 1978, pp. 137-157.
- Pratt, J.,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Subject's Information Processing: A Comment,"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80, pp. 501-506.
- Richards, Lazarus, *Patterns of Adjustment*, McGraw-Hill, 1976, pp. 32-34.
- San Miguel, J.G.,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and its Relevance to Accounting: A Laboratory Stud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December 1965, pp. 357-373.
- Schroder, H., M. Driver, and S.S. Streufert,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7.
- P. Suedfeld (Eds.), *Personality Theory and Information Processing*, Ronald Press Co., 1971.

Taylor, R.N., "Age and Experience as Determinants of Manager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Decision Making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March 1975, pp. 74-81.

Tomassini, L.A., "Assessing the Impact of Human Resources Accounting: An Experimental Study of Managerial Decision Preference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77, pp. 904-914.

Witkin, P.K. Oltman, E. Raskin and S. A. Karp, *A Manual for the Embedded Figures Test*,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1).

Witkin and D.R. Goodenough,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July 1977. pp. 661-686.